

미술부의 선은 누가 그었는가
단편 시나리오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영상학회
19th 알프 21기작 영화팀

※ 참고 ※

편의를 위해 용어를 아래와 같이 통일함.

- ▶다큐캠 인터뷰 : 작중 다큐동아리가 촬영한 인터뷰 컷을 의미함.
- ▶다큐캠 인서트 : 작중 다큐동아리가 촬영한 인서트 컷을 의미함. 나레이션이 깔릴 때 사용되는 인서트. ex) 용의자 사진, cctv 화면을 녹화한 장면 등
- ▶다큐 리얼캠 : 작중 다큐동아리가 촬영한 인터뷰/인서트 컷 외의 모든 컷을 의미함. 주로 다큐 동아리 내부를 찍는 장면. ex) 다큐 동아리 부원들의 회의 장면, 갈등 장면 등
- ▶알케캠 : 전지적 작가 시점. 다큐동아리가 직접 카메라로 찍지 않은 장면이지만 시청자는 볼 수 있는 영화적 허용.

1. 다큐부 동아리방 / 사건 다음 날, 오후

▶ 다큐캠 인터뷰

다큐실 의자에 앉아 개별로 인터뷰에 응하는 미술부 부원들이 준택부터 차례대로 등장한다.

검정 화면에 목소리부터 페이드인. 이내 준택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카메라 너머에 있는 인터뷰어 지수를 보며 대답하는 미술부 부원들. (카메라 렌즈보는 거 x) -> 이 설정은 모든 인터뷰 씬에 적용됩니다.

준택	선.. 같은 게 있었어요
희진	(착잡하다는 듯이 한숨..)
유림	무슨 그림마다 그려봤더라구요? 우리가 뭘 밍보였나? 싶기도 하고..

2. 도서관에서 미술부 동아리방 / 사건 당일 밤 10시

▶ 알케캠

어두컴컴한 밤 10시.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준택을 매끄러운 카메라 무빙으로 담는다. 필기를 멈추고 따분하다는 듯이 펜을 돌리는 준택. 마침 눈에 들어오는 건, 도서관 히터를 끄는 근로생. 준택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이 자리를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선다. 도서관 건물을 나와 통화를 하며 미술부 동아리방이 있는 건물로 향한다(대사 소리x). 미술부 동아리방 문을 여는 준택. 불을 켜자마자 놀라는데,,

암전 속에서 떠오르는 제목 <미술부의 선은 누가 그었는가>

3. 다큐부 동아리방 / 사건 다음 날, 오후

▶ 다큐캠 인터뷰

의자에 앉아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준택. 인터뷰어이자 다큐부 차장인 지수는 카메라 너머에. 목소리만 출연한다.

지수	그래서 거기서 본 게..
준택	어. 거의 모든 작품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어.

4. 미술부 동아리방 / 사건 다음 날, 오전

▶ 다큐캠 인서트(by 정민), 지수 나레이션

훼손된 작품 사진들이 속속 넘어간다. 미술부 동방에서 그 사진을 찍는 지수의 모습, 저쪽 구석에서 미술부 부원들은 머리를 감싸며 착잡해한다.

지수 (나레이션)	어젯밤,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유일한 미술동아리의 작품들이 훼손되었다. 이 작품들은 다음 달에 예정된 미술부 전시회에 출품할 것들이었는데.. 하룻밤 아니, 몇 시간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
--------------	---

5. 지수 자취방 / 사건 당일, 밤 10시 이후

▶ 지수 노트북 내장캠 인서트, 지수 나레이션

지수의 노트북 내장캠 시점. 지수가 노트북을 열더니 통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 (노트북 시점으로, 암흑에서 지수의 모습이 열리듯이 보인다.)

지수 (노트북을 열고) 어, 이제 말해봐. ... 뭐라고? 작품훼손?!

여전히 노트북으로 녹화된 지수의 통화장면. 하지만 지수의 통화내용은 묵음처리 되고 나레이션만 나온다.

지수 *나레이션* 우리 다큐동아리 부원이자 동시에 미술 동아리 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준택이의 전화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전화로 들은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꽤나 흥미로웠고 우리 다큐팀은 이 사건을 맡아서 취재하기로 했다.

▶ 나레이션 후반부에 다큐캠 인서트

다큐 동아리방 입구 인서트. 입구에 '주안대학교 다큐동아리 신입부원 대환영'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6. 다큐부 동아리방 / 사건 다음 날, 오후

▶ 다큐캠 인터뷰

지수(목소리만) (소프트한 말투) 넌 그 시간에 거길 왜 갔어?

준택 (카메라를 의식한 듯 무릎에 손.) 어제 9시에 미술동아리 끝나고 애들이랑 다같이 나와서, 나는 도서관 가가지고 과제하고 있었어. 근데 히터를 안 끄고 나온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끄러 갔었어.

지수 그러고?

준택 근데 작품들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미술부 단톡에 바로 말했지.

-

유림 (다리를 곧 채, 편안한 자세) 그때, 지원이랑 같이 밥먹고, 술집 가서 술마시고 있는데 준택이한테 그 톡이 온 거야 그거 보자마자 지원이랑 같이 달려갔지. 그게 진짜 몇 달은 준비한 거였는데.. 하..

▶ 단톡방 캡처본 인서트

지수 그럼 준택이가 단톡방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유림이 너랑, 같이 밥 먹은 지원이랑, 그리고 준택이만 동아리방으로 온 거야?

유림 희진언니까지 다 왔지. 4명 다 왔어.

지수 ..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 너네 인원 4명이 다야?

유림 어.

지수 ...

유림 너네도 4명 아니야?

지수 우리 다섯,,,명,,,인데...

유림 (어이없는 헛웃음.)

7. 다큐부 동아리방 / 사건 다음 날, 밤

▶ 다큐 리얼캠1(by 정민) + 리얼캠2(동방전체가 담기는, 사물함 위)

지수와 준택이가 테이블 앞에 앉아 논의하고 있다. 이때 뒤늦게 다큐동방으로 들어오는 성연. 1학년 정민은 여전히 지수와 준택을 찍고 있다.

지수 성연이 왔어?

성연 어 하이하이~ 와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이나? 일단 이거부터 마시면서 하자 정민아 너도 마셔~

성연이 리얼캠1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수와 준택에게 음료를 건넨다. 카메라 너머의 정민에게도 음료를 건넨다. 정민은 소리내어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다.

성연 (앞으며 능청스레) 아유 뭘 또 여기까지 오래~ 그냥 카톡으로 얘기하면 되지~

지수 (억지로 웃으며, 설득하는 느낌) 이런 그림 하나 있으면 좋잖아?

성연 지수가 이런 걸 참 좋아해ㅎㅎ, 그래서 이게 뭔일이래?

지수 내가 봤을 땐 원한 때문인 것 같애. 보통 이런 일은 다 그렇지 않아?

성연 그렇지..? 아니면, 실수?

지수 실수?

성연 실수로 한 작품에 물감을 쏟았어. 근데 그 사람 것만 망친 게 너무 미안해서, 그냥 다른 작품들에도 부어버린-

지수 (개소리인 거 같아도 들어는 주겠다는 표정, 다큐는 진지하게 하는 지수)

 (지수의 표정을 확인하고) -거는 아니겠지~ ㅎㅎ

성연 (분위기 환기) ㅎㅎ.. 그럼 진짜 원한, 뭐 그런 거 때문인가.. 준택아 뭐 아는 거 없어? 미술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든가.. 미술부랑 트러블이 있었던..?

준택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

성연 응?

준택 어? 뭐라고.....

지수 (준택을 수상하게 쳐다봄)

성연 미술부랑 척을 진 사람이나 동아리, 뭐 이런 거 없냐고

준택 아.. 사실 잘 몰라..

지수, 성연 ?

준택 (여전히 다른 생각에 잠겨있다. 소심한 말투) 내가, 동아리를 여기랑 저기, 두 개나 하
다보니까 그런 자세한 걸 잘 몰라.. 미안..

지수, 성연, 준택 ... (각자 골똘히 생각) (지수는 몰래 준택을 힐끔 본다)

지수 (준택으로의 시선을 거두며) 그래, 이 점에 대해서는 미술부 애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겠네. (의자에서 일어난다)

성연이 따라 일어난다. 정민은 앉아서 카메라를 위쪽으로 들어 성연과 지수를 찍는다. 준택만 여전히
앉아있다.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때 지수와 성연을 찍던
정민이 준택에게로 카메라를 돌린다.

준택 (말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며 난감한 듯이 작은 목소리로)
..히터는 꺼져있는데, 엄청 따뜻했어.

지수, 성연 ..?

준택 내가 10시쯤에 동아리방 히터를 끄러 다시 가보니까 히터가 꺼져있었어. ... 근데 히터
는 꺼져있는데, 바로 직전까지 켜져있던 것처럼 동아리방이 너무 따뜻한 게 좀..
(이상하지 않냐는 듯이 고개를 들어 아이컨택)

준택을 찍던 정민리얼캠이 준택의 시선을 따라가서 성연과 지수를 찍는다.

8. 미술부 동아리방, 건물 / 사건 다음 날, 밤

▶ 다큐캠 사진 인서트 + 나레이션

인서트 : 동아리방 내부 / 미술동아리가 있는 낡은 건물의 외관 사진

지수 *나레이션* 준택이의 말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었다. 미술부는 꽤나 낡은 건물의 동아리방을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방에서 히터를 끄면 약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금방 다
시 추워지기 때문이다.

9. 미술부 동아리방 / 사건 다음 날, 밤

▶ 다크 리얼캠(by정민) + 나레이션

미술부실에서 이것저것 살피는 다크 부원들.

성연과 준택은 함께 훼손된 작품들을 보고 있고, 지수는 혼자 히터 앞을 서성인다.

성연과 준택이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더 작아지며 나레이션 오디오 인.

지수나레이션 그렇다면 준택이가 다시 이곳에 오기 전, 히터를 끄러 온 또 다른 사람이 정말 범인인 것일까?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준택이는 용의선 상에서 배제된다 ...

지수(대사) (괜히 떠보며 물어보기) 이 히터 말하는 거 맞지? 준택아

준택 응.

히터 앞에서 고민하는 지수 줌 인.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택을 뺨히 쳐다본다.

10. 학교 전경 / 사건 이틀 뒤, 오전

▶ 알케캠

다음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학교 전경샷. 인경호든, 학교건물이든 하늘이랑 같이 보이는 샷.

11. 다크부 동아리방 / 사건 이틀 뒤, 오전

▶ 다크캠 인터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와 눈을 맞추며 말하는 지수.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고 뒷걸음질하여 의자에 앉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지수 (손동작을 많이 사용하며) 네, 오늘은 우선, 미술동아리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미술부 부원 4명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다크부 동아리방 / 사건 이틀 뒤, 오전

▶ 다크캠 인터뷰

유림 나? 나 그 날 뭐했는지 저번에 말 다 했는데? 그 때 회의 끝나고나서 지원이랑 밥 먹고 2차로 술 마시다가 그 연락받고 동방으로 다시 갔다고. 지원이랑 같이. [잠시정적(지수가 뭘 묻는데 무음처리)] 어. 밥이랑 술도 지원이랑 먹었지

지수 식당이랑 술집 이름 알려줄 수 있어?

유림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카메라 너머에 있는 지수에게 결제 내역 화면이 뜬 휴대폰을

건넌다. 지수는 그걸 받아서 확인한 뒤, 카메라에 비추어서 보여준다.

13. 주안대 후문 식당가 / 사건 이틀 뒤, 미술부 3명의 모근 인터뷰가 끝난 오후

▶ 다크 리얼캠(by 지수캠)

휴대폰 카메라를 든 지수.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말을 한다. 휴대폰 후면 카메라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1인칭 시점으로 찍는다. 중간에 ▶결제내역 인서트

지수 사건 당일에 유림이가 지원이랑 @@@이랑 □□□을 갔었다며 결제 내역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내역만으로는 유림이랑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지원이가 맞는지 알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러 식당에 가는 길입니다.

식당 앞에 도착해서 식당 입구를 줌인한다.

14. 식당 @@@ / 사건 이틀 뒤, 미술부 3명의 모든 인터뷰가 끝난 오후

▶ 다크 리얼캠(by 지수캠)

식당 @@@에 들어서는 지수. 촬영허가를 받기 전이라 휴대폰을 든 팔을 아래로 내렸지만 손목은 90도로 꺾어서 식당 내부를 촬영 중.

지수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터뷰 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직원 네? 어디서 나오셨는데요?
지수 그냥 학교 동아리에서..
직원 (탐탁지 않은 듯한) 예.. 뭐 찍고 그런 건 없죠?
지수 (켜져 있는 폰카메라를 슬쩍 숨긴다) 넵 없습니다.
직원 물어볼 게 뭔데요
지수 이틀 전 화요일에 이 손님 왔던 거 기억하세요? ▶유림사진인서트
직원 아, 네 기억나죠 우리집 단골이에요
지수 그럼 혹시 이 친구랑 같이 왔었나요? ▶지원사진인서트
직원 (수상하고 언짢은 말투)네. 근데 그건 왜요?
지수 (직원의 질문은 듣지도 않은 듯. 직원의 대사가 끝나자마자) 아 그러면 식당에서 나간 시간도 기억하세요?

15. 술집 □□□ / 사건 이틀 뒤, 미술부 3명의 모든 인터뷰가 끝난 오후

▶ 다크 리얼캠 (by 지수폰)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수. 촬영허가를 받기 전이라 팔을 내려 폰을 아래로 내렸지만 손목은 90도로 꺾어서 식당 내부를 촬영 중.

지수 안녕하세요, 저 흑시-

▶ 알케캠 (by 몰래보는 듯한)

지수, 사장님과 마주보며 몇 마디를 나누더니, 몰래 폰을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사장님 옆으로 가서 아이패드로 유림과 지원의 사진을 보여준다.

지수 유림이의 결제 내역과 가게 사장님들의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미술부 2학년 유림이와
나레이션 지원이는 9시부터 9시반까지 @@@, 9시반부터 10시까지는 □□□에 있었던 게
 맞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다크캠 인서트

식당이란 술집 인서트, 학교 인서트, 지원유림 각각 사진 인서트

지수 나레이션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시 학교로 와서 작품을 훼손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둘을 용의선상에서 가장 먼저 배제할 수 있었다.

16. 다크부 동아리실 / 사건 이틀 뒤, 오전

▶ 다크캠 인터뷰

희진 (어색한 듯이 눈을 굴린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척)

지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사건 당일인 12월 6일에 미술부 활동이 끝난 9시에
 서, 10시 사이에 어디 계셨나요?

희진 (당황스럽다는 듯이) 네?
 (팔을 쓰다듬으며 눈을 굴린다) 아.. 저는 바로 집으로 갔던 것 같은데요.

지수 아~ 네~

희진 (지수의 '아,,네,,'가 끝나기도 전에 대사 시작. 화제 돌리는 느낌) 근데 지금 이거 범
 인 찾으려고 찍는 거죠?

지수 네 맞아요

희진 그럼 그냥 cctv 한 번 확인해보면 되지 않나요?

17. 다크부 동아리실 / 사건 이틀 뒤, 미술부 3명의 모든 인터뷰가 끝난 오후

▶ 다큐 리얼캠(by 정민)

다큐실에서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지수. 정민이 촬영 중이다.

▶ 다큐 리얼캠(by 정민)

통화중인 휴대폰 클로즈업한 인서트

경비 (귀찮은 서비스업 말투) 네 주안대학교 종합상황실입니다.

지수 아, 안녕하세요 cctv 확인을 좀 하고싶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경비 네 학생증 가져오셔서 열람서류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오실 거면 날짜하고 시간 미리 말씀해주세요

지수 어제 저녁 9시에서 10시 *호관 cctv요

경비 아.. 어제 딱 그 시간대에 cctv백업하고 점검하느라 영상이 없고, 대신 출입자명부 받아놓은 건 있어요. (뭔가 떠오른 듯이) 아! 근데 그게.. 물에 젖어서 버렸거든요. 어차피 이름이 하나 밖에 없길래..

지수 아.. 혹시 기억나는 거라도 있으실까요? 그 사람 옷차림이나..

경비 아이고 그게 딱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거 같더라고..

지수 (눈을 질끈 감거나, 머리를 해집는 등의 **빱침**의 행동)
... (한숨) 그럼 아무것도 못 보신 거네요?

경비 아..! 근데 이름이 남자이름이었던 건 기억납니다. 예.

지수 (놀람. 카메라 너머의 정민과 눈을 마주치며) 이름이 남자였다고요?

18. 다큐부 동아리실 / 사건 이틀 뒤, 오전

▶ 다큐캠 인터뷰

다큐팀 4명 다있음

성연이는 준택인터뷰 다음 차례라 옆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대기 중.

준택 ... 지수야 근데 이거 무슨 인터뷰야..?

지수 나레이션 알리바이가 확보된 지원이를 제외하면 미술부에 남자부원은 서준택 뿐이다.

준택 난 그때 말했던 거 그대로야.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동아리방으로 갔었어.

지수 증명할 수 있어?

준택 증명..? 어.. 성연이랑 통화한 적 있어. 문자도.

지수

준택 지수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나도 의심하는 거 아니지..?

▶ 사물함 위 리얼캠2 (다큐실 전체풀샷)

지수 ... (날카롭게) 근데 너 히터 꺼져있었다는 얘기할 때, 왜 망설였어?

성연,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 지수와 준택을 바라본다. 정민은 여전히 리얼캠으로 촬영중이다.

▶ 다큐캠 리얼캠1 (by 정민) + 인터뷰캠 교차

준택 어?

지수 아니, 어제 우리 동아리방에서 너가 히터가 금방 꺼진 것처럼 따듯했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 근데 그걸 왜 진작 얘기하지 않고 다음날에 늦게 말했냐고.

성연 야, 지수야. 너 지금 뭐-

준택 (의심하는 지수와 화난 성연의 눈치를 보며) 난 그냥,, 내가 이걸 말하면 미술부 애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니까... 좀 그래서...

지수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표정)

성연 (지수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19. 다큐부 동아리실 / 사건 이틀 뒤, 오전

▶ 다큐캠 인터뷰

같은 팀인 준택을 의심하는 지수에 살짝 뺨쳐있는 성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말을 빨리한다.

성연 어. 내가 어디냐고 문자해서 애가 9시쯤에 도서관이라고 답장 왔고 10시쯤에 다시 전화 왔었어. 통화할 때 애 아마 중도에서 나오고 있었을 거야.
[잠시 정적]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지수가 어이없음) 하.. 진짜... 통화기록 보여주면 되지?
(휴대폰을 만지작대다가 지수에게 폰을 들이민다) 자. 봐봐. 10시 5분에 통화했다고 뜨네.

지수 중도에서 통화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

성연 (지수의 태클에 뺨쳐서 한숨)

20. 중앙도서관 로비 / 밤

▶ 알케캠 인서트

로비 게이트에 학생증을 찍는 인서트

성연 voice (뺨침을 참으며) 왜냐면 중도 로비에서 학생증 찍으면 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효과음 '뺨' 소리가 나며 블랙아웃.

21. 다큐부 동아리방 / 사건 이틀 뒤, 오전

▶ 다큐 리얼캠1 (by 정민)

마지막 성연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지수. 인터뷰 대상들이 없었던 의자랑 인터뷰를 촬영하던 카메라,삼각대 등을 정리한다. 지수를 멍하니 쳐다보는 준택과 성연.

지수 (애써 좋게 마무리하려는 말투) 인터뷰하느라 수고했어. 나중에 연락줄게.

성연, 준택 ... (이게 뭐가싶다. 어이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성연, 준택과 함께 나가려고 문을 열기 전에 지수에게 뭔가 할말이 있다는 듯 상기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이내 옆에 정민이 있다는 걸 의식한 듯 카메라(정민)을 힐끔보더니 화를 참고선 문을 열고 나간다.

22. 학교 / 사건 이틀 뒤, 늦은 밤

▶ 알케캠 인서트

시간이 지나 어두워진 학교 풍경 혹은 동방

23. 다큐부 동아리방 / 사건 이틀 뒤, 늦은 밤

▶ 다큐 리얼캠2(사물함) + 훑쳐보는 알케캠

다큐 동아리방에 혼자 남은 지수. 아까 혼자 가게에 가서 찍은 영상들을 노트북으로 편집 중이다. 이때 동아리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성연과 준택. 성연은 지수에게 기분이 완벽하게 상한 상태이고, 지수는 일전에 준택을 몰아붙였는지라 그들을 마주하는 게 곱고럽다. 입장부터 썩한 분위기.

지수 (고개를 준택성연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노트북으로 향하며) 어? 왜?

준택 뭘 좀 놓고가서. ... (노트북에서 나오는 영상을 쳐다보며) 근데 그건 뭐야?

지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노트북을 하며) 아.. 아까 인터뷰 끝나고 식당 들러서 찍은 거

성연 ... (썩한 표정으로 지수를 노려본다)

준택 (차분하게) 혼자 가서 찍고 왔어?

지수 응. 알리바이 확인하는 거 때문에. [잠시정적, 마우스 딸깍 소리]
그리고 미안한데, (자리에서 일어난다. 준택을 보며)음.. 이거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니
까 너희 이번 다큐에 참여하는 거 앞으로 좀 자제해주면 좋겠어.

성연 (준택과 나란히 서있다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서 지수에게 가까이 간다. 헛웃음을 뱉으며) 뭐? 야. 너 다시 말해봐.

지수 ...

성연 지금 우리더러 빠지라고? 너 지금 이 동아리가 네 거 같냐? 이제 부장 없으니까 차장인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헛웃음)

지수 (발끈) 네 눈에는 지금 내가 부장 없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설치는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누가 범인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 의심해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마. 나는 할 일 하는 거니까.

성연 야. 오늘 네가 우리한테 인터뷰하러 오라고 연락했을 때. 무슨 인터뷰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인터뷰를 당하는 건지, 찍는 건지도 모르고 나왔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같은 팀끼리? 아니다, 이게 팀은 맞냐?

지수 아니 알리바이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미술부 동방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네 명 밖에 없는데, 그럼 그 네 명 알리바이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큐팀으로서 이해 못 해?

성연 그래서 그거 우리랑 상의했냐? 너 혼자한 거 아니야... 나랑 준택이는 다큐팀 아니야? 어?

준택이 지수와 성연의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다큐부동방을 나간다.
문 닫히는 소리. 문소리를 들은 지수와 성연 사이의 짧은 적막.

지수 솔직히 준택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아직 없잖아.

성연 (어이가 없다는 듯 혼잣말) 하, 진짜 장난하나. 내가 말했잖아, 나랑 통화하고 있었다니까?!

지수 ... 너네 둘이 짠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성연 뭐? 너 미쳤냐 진짜?

지수 막말로, 니들 친하잖아. 서로 감춰주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너네 빼고 아무도 모를 일이야. 지 범인 아닌 척하려고 히터가 따뜻했네 어쨌네하는 얘기 지어냈을지 혹시 아냐? 어? 아니 넌 니 친구 감싸줄 생각에 그런 생각도 안 해봤겠지. 니가 맞는 거 같냐, 내가 맞는 거 같냐?

성연 야. 애가 제보자야. 의심 할 사람을 해야지, 진짜. 범인이 누군지 가장 알아내고 싶은 사람이 애라고. 근데 넌 도와주지나 못 할 망정, 애 의심하고 이젠 우리보고 동아리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네? 지금 생각해보면 니 머릿속에선 처음부터 준택이가 범인이었어. 안그래?

지수 아니 그계-

성연 (지수의 말을 끊으며)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드라마틱한 거. 너 솔직히 이 사건, 자작극이길 바라고 있지? 언젠가 끝장나는 다큐 한 번 찍어보고 싶다고 맨날 노래를 불렀잖아. 지금이 딱 기회겠네 너한테. ... 이만 영화 놀이할 거면 너나 해라.

할 말을 끝낸 성연, 욕을 짓씹으며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가서 사물함 위에서 녹화하고 있던 카메라를 툭 하고 끈다. 암전.

24. 식당@@@ / 사건 당일, 9시~9시반

▶ 알케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희진.

같은 식당으로 지원과 유림이 들어온다. 희진은 둘을 봤지만 둘은 희진을 보지 못 한 상태.

둘은 희진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유림 “(가십거리얘기하듯이 가볍게) 근데 희진 언니가 피드백해준 내용,, 난 잘 모르겠더라”

지원 “뭔 피드백?”

유림 “그림자 부분을 더 진하게 하라는데 글씨다”

지원 “아 강 니 마음대로 해ㅋㅋ 언젠 말 잘 들었냐 그리고 솔직히 너가 더 잘하잖아”

유림 “ㅋㅋㅋ뿔래”

지원 “솔직히 그 누나 나가면 너가 부장될 걸”

유림 “ㅋㅋ 아 그런가”

지원 “ㅋㅋㅋㅋㅋ니가 더 잘할 지도? 그림 그리는 거말고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진담반농담반)
솔직히 지금 우리 동아리가 작년만하지는 않잖아. 이제 니가 내년 부장 돼서 일으켜세우는 거지”

이런 대화를 들은 희진은 그 둘이 밥을 다 먹고 나갈 때까지 일어날 수 없었음. 오히려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임.

25. 주안대 후문거리 / 사건 당일, 9시반~10시

▶ 알케캠

밥을 다 먹고 나온 희진은 후문가를 걷다가 문자 하나를 받는다.

[동아리연합회장 :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며 히터를 사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퇴실 시 히터 전원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미술실 히터를 끄지 않은 게 생각나서 급한 걸음으로 미술실에 감.

26. 미술부 동아리실 / 사건 당일, 9시반~10시

▶ 알케캠

미술실에 히터를 끄고 나오려는데 눈에 띄는 건 지원과 유림의 그림.

그림을 몰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들의 그림 위로 물감을 지익 부어버린다.

27. *호관 로비 / 사건 당일, 9시반~10시

▶ 알케캠

동아리방에서 나와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로비에서 출입자명부를 보고있는 경비를 발견한다.

경비가 경비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정수기에서 일회용컵에 물을 받더니 몰래 그 위로 물을

부어버리곤 건물 밖으로 나간다.

희건(희진)이라는 글씨 위로 물이 번진다.

암전

암전 속에서 떠오르는 자막 <다큐부의 선은 누가 그었는가>